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유 승 중
(대진대학교)

〈요약〉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반해 인간의 심성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질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심성은 부차적인 요소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은 삶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의 심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먼저 대순진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심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일심'을 중심으로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심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수련과 공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I. 서론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삶의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기를 거쳐서 달성해야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새롭게 삶의 의미를 자각하는 시기이므로,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고,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의 자질을 계발하고, 지식들을 쌓게된다. 또한 그들을 안고 있는 사회는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서 관습과 사회적인 규범들을 익혀나가며, 사회에 대한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는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학교 교육이나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풍조에 의한 교육 상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육에서는 인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의 전체적인 상황은 산업화의 경제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적인 풍조는 결국 인간의 심성을 왜곡시켜, 사회에 많은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왜곡된 현상 중 중요한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의 팽배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분위기보다는 사회에 만연된 경쟁 심리는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고, 교육 자체도 그러한 풍조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학생들을 점수로 계량화하여 우열을 정하고, 그 정한 바가 곧 그 개인의 인간성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왜곡된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에서도 물질적인 소유가 '잘산다'는 의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물질적인 재화를 소유하기 위한 경쟁은 남의 피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을 변모시킨다. 또한 나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의식이 결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게 되며, 인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인간 자신이 경시되는 의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대의 이렇게 왜곡된 사회의 풍조는 당연히 청소년의 심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왜곡된 사회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이 올바른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의 지식을 쌓아 가는 교육과 함께 심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증산의 가르침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증산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청소년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증산(甞山)이 제시한 ‘일심(一心)’에 대한 주장은 인간의 심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증산의 일심에 대한 설명과 수도를 중심으로 심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심성의 의미

인간의 심성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에서 고대로부터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인간의 심성에 대한 탐구는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대답이 인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각기 상이한 만큼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서 대별되는 심성의 이해는 유물론적인 해석과 유심론적인 해석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분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또는 이성적인 이해와 심성의 작용을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기존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양의 영향을 받은 마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 따르는 이해는 마음의 작용을 주로 ‘理性’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주로 인식적인 기능에만 치중하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주로 실증적인 범주에 국한된 인식 기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동양의 전통적인 인식 방법인 ‘직관’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서양은 이성적이지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반면에, 동양은 이와 대비되어 직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든가 지성적이라는 말은,

“사유와 추리의 연역으로서 실재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특징으로 여긴다. 노드롭(Northrop)교수는 ‘가정에 의한 개념(concept by postulation)’이라는 어구를 만들어 서양철학자들은 ‘가정에 의한 개념’을 사용하여 철학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푸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서양에서는 전자 학설에 의하여 ‘푸르다’는 말의

뜻을 일정한 파장의 수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하여 놓고 경험된 사실을 이 가설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설명하려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분명히 이성적 작용이며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김하태, 1985: 56).

이러한 서양의 과학적 입장과는 달리, 노드롭교수에 따르면,

‘직관에 의한 개념(concept by intuition)’으로서 동양철학은 수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에 의한 개념’은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의 전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노드롭은 설명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푸르다’ 하는 것은 직관에 의하여 감각된 빛깔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육감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감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김하태, 1985: 56 - 57).

이러한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양적인 사고의 특징은, 대상을 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관은 단순히 대상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전일적(全一的)’인 세계에 근거한 총체적 인식이다.

동양의 일반적인 심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마음이란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즉, 맹자는 ‘만물개비어아(萬物皆備於我, 「孟子」 盡心章: 上)’라고 하여, 인간의 마음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으므로 인간의 마음만을 고구하면 우주 자연의 법칙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불교에서도 ‘개유불성(皆有佛性)’이라 하여 모든 중생은 하찮은 존재로 보일 지라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일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마음의 작용은 인식의 작용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동양에서 논의되는 마음의 특징은, 직관으로서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뿐만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된 것이 반드시 실제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

로 인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의 성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전경(「典經」)에서도,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는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교법, 2장 5절)라고하여 일의 성사 여부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인식적이거나 의지적인 작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경」에서,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뺏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교법 3장 20절)”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것도 역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세계관이 현대에 들어와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의 신과학 입장에서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데카르트적인 물심이원론(物心二元論)의 입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물질과 정신[物心]의 구별이 없고 마음과 몸[心身]의 차이도 없다. 모두가 하나로 말려들어가 녹아들어 있다. 이것을 제일의적인 실재라고 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물심이원론에 대한 도전이며 심신론(心身論)에 새로운 시야를 여는 일이기도 하다.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에서는 마음과 몸[물질]은 별개의 다른 실체로 여겨져 왔다.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 되어 존재하지만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해 관계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봄에 의하면 이같은 견해는 ‘숨겨진 질서’의 이론과 양립되지 않는다. ‘숨겨진 질서’는 마음과 물질 일반을 말아 넣고 있다. 무엇보다도 몸을 말아 넣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마찬가지로 몸은 마음 뿐 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 우주 하나 하나를 말아 넣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몸과 마음은 더욱 광대한 하나의 아총체(亞總體)의 인자(因子)라고 불러야 마땅하며, 이 아총체가 심신 쌍방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 1989: 246 - 247)

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물질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물질의 개념에 근거한 동일시가 아니라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심신일원론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몸과 마음이 모두 동일한 에너지체라는 주장이다.

신과학 기술이 밝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에너지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즉, 마음으로 모든 물질이나 물체를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다. 몸과 마음이 다 같은 에너지체이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변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위의 모든 물체를 역시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예를 우리는 초능력자들에게서만 보아왔다. 초능력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는 의심하기 좋아하는 기자들마저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밀봉한 유리병 속에 물체를 집어 넣거나 그 안의 물체를 밖으로 꺼내는 일이다. 이와같이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초능력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체는 물질이며 때에 따라서는 생각의 힘만으로도 물질의 에너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방건용, 1997: 299).

이것은 기존의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와 같은 존재로 파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대 신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정받거나 실증된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가설을 세워 설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지금 까지 미신이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오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고, 단지 신비한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동양의 사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동양의 사상의 중요한 요소를 간과할 수 밖에 없다. 증산이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도 이러한 전제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심성에 대한 증산의 설명은 ‘일심(一心)’에 대한 그의 강조에 잘 나타난다. 그가 말하는 마음이란 이 우주의 중심이며 자연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괄하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천지우주의 운행과 움직임은 전체적인 하나의 원리와 이치로서 통할이 되는데, 이 원리와 이치는 일정한 법칙이고 우주의 마음[宇宙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원리가 천지간의 모든 개개사물과 생물, 인간에게 투영되어 잠재하고 있다면, 우주안의 모든 사사물물은 그대로 우주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게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소우주(小宇宙)로서 인간의 마음에는 우주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천지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 나가게 된다.

「전경」의 “천지지중심심야 고동서남북 신의어심(天地之中心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교운 1장 66절)의 내용에 따르면 비록 천지의 모든 일이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가 무용이므로 천지가 사람을 화생케 하였고, 사방.천지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천지인 삼계의 모든 움직임이 마음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邪心) 두가지 요소가 있다.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해서 발동하는 욕심이다. 즉 양심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고유하고 청정무구한 품성인데 반해 사심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번뇌, 망상, 허영인 것이다.

마음 안에는 이러한 두개의 상반된 기운이 서로 승부작용(勝負作用)을 하고 있다. 양심이 커지면 사심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사심이 발동하면 양심은 이에 가리워져 빛을 잃게 된다. 증산은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교법 1장 1절)라고 한탄한 것은 바로 인간이 말단적인 이익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고유한 천품성(天品性)을 상실했음을 안타까워하신 것이다.

결국 이같은 시대를 당하여 근원적으로 마음을 닦고 덕을 기르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존이란 신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지 않고는 증산이 말하는 목표인 신인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인식의 주체이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이나, 이성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기존의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주체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에 도통에 관한 대목이 있다. “내가 도통 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 선들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교운 1장 41절)” 라고하여 심신 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교법 1장 21절)”,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취하여야 되느니라(교법 1장 23)”라고하여 마음의 탐욕을 없애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현실 생활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이 산란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보인다. 즉,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 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교법 2장 5절)”,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 2장 6절)”는 지적이 그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한 가지 생각에 전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하더라도 그 굳은 마음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말아, 처음의

마음가짐이 사라지게 되고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증산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一心’을 지녀야 할 것을 부단히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에서,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우니라(교법 2장 7절)”,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돌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 들 때 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교법 2장 8절)”라고 하여, 혼탁하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지처를 제공하고 사람은 여기에 의지하여, 미혹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러한 의지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빠져드는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심(一心)’을 견고하게 지니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 「전경」에서도 그 이유를 이렇게 말 씀 하신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 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 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 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불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 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라고 하신 말씀이나,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 데, ‘뒀 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리할 뿐이리오.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잘못 뒀은 자는 앓을 자리에 갈 때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엎드려 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도다(교법 3장 25절).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친숙하게 추종하나 훗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교법 3장 25절)

는 말씀은 즉, 모든 것은 인간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그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진실된 바를 그 때 그 때 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갑자기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그마하고 미세한 것이 계속 누적된 연후에야 그 결과가 들어 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가 모여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선악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의 생활에서 그러한 분별력에 따르는 실천 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심성 교육은 분별력과 함께 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와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일심’을 지녔는가 지니지 못했는가 인간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전경」에서,

공우는 종도들이 모두 상투를 틀고 있는데 자신이 삭발하였기에 그들과 사이가 어려우므로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리를 길러 솔잎 상투에 갓 망건을 쓰고 다니다가 금구(金溝)를 지나던 어느 날 일진회의 전 동지 십여 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 달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도다. 돌연히 상제께서 찾아 오셔서 한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뢰이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작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교법 2장 10절)

라는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正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위와 이치를 밝히고 이행하는 일은 먼저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상대의 마음과 언행처사가 아무리 옳아도 올바르게 볼 수 없고 온갖 사물과 사실들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증산은, “정심수신치국평천하 위천하자불고가사(正心修身治國平天下 僞天下者不顧家事)”라고 하여 정심에서 출발하여 천하를 위하여 사사로운 일을 멀리 하는 수도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를 행하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실 때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시고 혹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셨도다(교법 3장 8절)”는 내용은 정심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자기 반성은 마음을 닦고 넓혀 나가는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치 않을 경우는 자기반성의 자세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믿음과 실천 수행에는 자기 부정의 고통이 따른다. 그에 잘못을 수궁하고 인정해야만 그것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세는 수심연성(修心煙性)의 기초가 된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나아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마음의 노력에서 출발한다.

증산은,

남을 속이지 말 것이며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느니라(교법 1장 57절).

죄 중에 노름의 죄가 크나니라. 다른 죄는 혼자 범하는 것이로되 노름죄는 남까지 끌어 들이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라(교법 1장 58절)

고 하심으로써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계하였다.

또한 무자기(無自欺)는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는 경우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짐에 따라 그 이전의 자신은 가식과 허용, 자만, 자존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 말고 조심하라(교법 1장 36절)”는 내용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갈수록 세밀하게 치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Ⅲ. 심성 교육으로서의 수도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수도다. 또한 수도는 실천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종교적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유리된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수도의 결과를 검증 받는 것은 고원한 이론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판단 받는다. 인간의 행위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므로 그 사람의 깨달은 바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동·서양에 나타난 성인들이 성인으로서 추앙 받는 까닭은 그들이 주장한 이론 체계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몸소 실천한 행동에 의해서다. 진리를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라고 말한 그 내용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다. 어떠한 지식도 머리 속에만 자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의 심성 교육은 실천을 강조하는 수도에만 집중될 수는 없다. 아직 다양한 지적인 세계에 대한 뚜렷한 자신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다양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잘못된 혹은 폐쇄적인 지식 체계 내에 갇혀 버린다면, 그 외의 모든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각인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심성 교육의 방향도 지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성격이 함께 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수도는 이론적인 행동 지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론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

는 것이라면, 수도는 그 길을 따라 직접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악이나 더러움을 피해서 자기를 정화하면서 자기 속에 잠재하고 있는 기록 한 것을 확인하는 수도
- 2) 마음과 몸을 단련해서 신념을 강화하여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함에 의해 성스러운 것에 동화하려는 수도
- 3)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수도
- 4) 신명의 덕을 얻기 위한 수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정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식으로 중복된다.

또한 수도에는 구조와 방법이 있다. 수도는 앞에서 말한 목적을 가진 수도자가 일정한 환경 속에서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행하여진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법, 운명이나 신명을 관하는 관법, 해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다. 수도를 계속함으로써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차로 맑아지면서 깊은 신비적 체험에 이르게 된다. 이 체험은 감각, 감정, 생각, 기억 등의 작용이 제재된 상태를 말한다.

수도에만 공사(公事)가 없다. 이것은 수도가 조화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환경 사회는 공사에 의해서 후천선경으로 조화될 수 있으나, 사람의 심덕을 닦는 수도만은 사람의 진심노력에 일임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는 개인이 스스로 마음과 몸을 단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단련으로 정대함과 종용함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대하다함은 도덕윤리의 조항이고, 종용은 수련 끝에 오는 성과라 하겠다. 따라서 수도에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포함된다. 「전경」에 “…… 1) 마음을 바로 하고, 2) 덕을 닦기를 힘쓰라. 동학 가사에 많고 많은 이 사람에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라고 있듯이 탄식줄

이 저절로 나오리라”고 기록하여 마음의 정대와 덕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심법을, 후자는 도덕의 덕행을 가르킨 것이라 하겠다. 수덕수심이 수도의 핵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수도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수도를 완성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다. 또한 이 목표를 향한 노력이란 그 목표를 세운 날로부터 부단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시기에 수도에 관심을 갖고, 궁극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하도록 스스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수련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중의 마음을 바로 한다 함은 공명 정대에 비추어서 마음의 정대를 보았거니와, 전경에서는 정심, 즉 바른 마음으로 표명되기도 한다. “공사를 행하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실 때에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시고, 혹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셨도다”라 하여 정심과 방심을 수련에서는 지적하셨다. 정심한 사람과 방심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를 가르키고 방심한 사람이 멀리 앉아서 탄식할 것임을 일러 주셨다.

그리고 정심을 일심, 한가지 마음으로도 표명하셨다. 일심은 “외면치레를 구하지 말것이며, 사물과 사리를 즉 천연을 찾되, 조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구절에 보이는 실하고 천연스러운 마음, 말을 바꾸면 성스럽고 동합이 없는 태연한 마음을 말한다. 그 마음에 이르자면 외식과 조작에 찬 마음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수련이 필요하다. 외식과 조작을 구하는 도인의 덕미를 증산이 친 일이 있었다.

앞에서도 인용한 내용으로,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오” 라고, 일진회원들이 상투를 틀고 있는 것에 웃음꺼리가 된 박공우가 상투를 베어 버렸는데 상투를 틀고 있는 종도들을 보고 다시 머리를 길러 솔잎 상투를 하고 있었던 그에게 경책하셨던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일심이 없는 자는 갈팡질팡하여 불안에 쫓기는 것이다. 따라서 일심만이 마음을 편케하고, 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일심에 관해 언급하신 것을 전경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배풀어주리라.
-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 가진 자가 없음이라. 한 마음만 가지면 앎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 할 것이로다. 앎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
-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 너희들은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나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 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는데 힘쓸지니라.
-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은 죽고 최면암은 살았나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뺏겨도 능히 만 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니라.
- 진심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오리라.

이상과 같이 일심의 도를 닦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하더라도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수련의 결과는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종교적인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련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 많은 욕망들이 한 마음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일심을 또는 진심을 견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하므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련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즉, 허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부터 수련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욕망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2. 공부

공부는 수련의 선 조건이 된다. 공부는 증산의 말, 구체적으로는 전경에 기록된 말을 식별하는 지혜를 갖추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 지혜에 따라서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증산 자신도 스스로 49 일의 불음 불식의 공부를 하여 무극대도를 인류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산이 한 공부는 창조이시고, 종도들은 그 모본에 따르는 수련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산의 수련공부는 광제광구를 여시는 것이었고, 종도들의 수련공부는 스스로 구원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부를 선 조건으로 한 수련자는 공자나 석가가 그 제자의 수를 72 명 과 5 백 아라한에 국한 시켰으나 누구든지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련자는 하재, 중재, 상재의 단계가 있음을 미리 알고 상재에 이르도록 수련에 힘써야 한다. 도통이란 종교적 상태는 개별성으로서의 편벽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공부와 수련은 구천상제님께 관감하심을 잊지 말고, 상제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가면서 방심에서 일심으로 마음을 옮기기 위해서 감각, 지각, 정서, 의지등의 작용을 억제,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최고의 상태로 이끄는 단련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수도의 형태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구분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든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기란 이러한 수도를 결심하기에는 지적인 수준과 결심의 강도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수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다. 먼저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종교 자체를 위해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위해 수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갖기 쉬운 독단적인 사고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 잘못하면 폐쇄적인 맹신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개방적인 자세를 갖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자각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자라므로 정신적인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기 쉽다. 증산도,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교법 1장 38절)”고 하여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시비를 가리는 마음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기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일이란 그렇게 시비가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자신의 분별이 절대적이라는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는 시비를 가림으로서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증산은,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술이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교법 2장 25절)”라고 하였다. 어릴 때부터 시비를 가리는 것을 배우는 것에 폐단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시비를 가린다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IV. 결 론

인간의 마음은 그 처한 상황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한 면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악한 면을 따라 갈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심성은 교육받는 내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심성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의 심성 교육이 청장년의 교육 내용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 종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된 교리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단지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증산도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한 두 구절에 국한된다. 왜곡된 가르침에 대한 일침을 가리킨 것으로 지엽적인 것에 가리워져 본

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다.(교법 2장 25절) 그러므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병폐는 피상적이고 말초적인데에 빠져서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망각하는데 있다. 이러한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본래적인 마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도하는 것만이 참된 자기를 찾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삶에 대한 자각이 있음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김인희(1980). 한국인의 교육학. 서울: 이성사.
- 김하태(1985). 동서철학의 만남. 서울: 종로서적.
- 김홍철(1992). 대순진리회의 실천수행원리. 대순논집, 1. 서울: 대순종교 문화 연구소.
-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1989). 氣란 무엇인가. 서울: 정신세계사.
- 윤재근(1992). 대순사상의 교육원리. 대순논집, 1.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 최준식(1998).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 서울: 주류성.
- 방건웅(1997).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정신세계사.
- 신과학연구회 편(1991). 신과학운동. 서울: 범양사출판부.
- 김탁(1992).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 문화.
- 이은봉(1984). 한국 고대 종교사상사. 서울: 집문당.
- 정진홍(1986). 한국 종교 문화의 전개. 서울: 집문당.
- 윤이흠 외(1987). 한국인의 종교. 서울: 정음사.
- 윤사순(1989).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율유문화사.
- 이상일 외(1983). 한국사상의 원류. 서울: 박영사.
- 한국종교협의회 편(1989).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